

초등학생의 세계 국가 위치인지의 공간적 특성

- ‘우리나라’ 및 ‘이웃 나라’를 중심으로 -

이간용* · 임미연**

Spatial Characteristic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Location Cognition of World Countries

- Focusing on ‘Korea’ and its ‘neighboring countries’ -

Khan Yong Lee* · Mi Yeon Lim**

요약: 위치는 지리의 핵심 개념이자 아이디어이고, 지리적 문해력의 기초이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및 ‘이웃 나라’에 대한 지도상 위치인지의 공간적 특성을 정치(定置)와 정향(定向) 면에서 분석한 것이다. 우리나라 위치에 대한 정위율(正位率)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전체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3학년과 6학년에서 도약적 상승이 나타났다. 그렇지만 초등학생의 전체적인 평균 정위율은 50%를 하회하는 문제점도 발견되었다. 우리나라에 대한 정치(定置) 특성으로는 저학년에서 세계적인 분산 분포, 중학년에 동아시아로의 집중화, 고학년에 한반도로의 밀집화 등의 계열적 경향을 보였다. 이웃 나라에 대한 초등학생의 전체적인 인지도는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미국, 몽골, 기타 등의 순으로 높았는데, 고학년에 갈수록 중국, 일본, 러시아의 3국으로 집약되는 경향을 보였다. 일본과 중국은 최상위 인지도 국가로서 저학년과 중학년에는 일본, 고학년에는 중국에 대한 인지도가 더 높았다. 이웃 나라에 대한 정향(定向)에서는 고학년에 갈수록 분포 범위의 확대, 분포의 군집화, 그리고 북서-남동 방향 축으로의 군집화 강화 등의 공간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위치인지, 정위율, 정치, 인지도, 정향

Abstract: Location is a key concept and idea of geography and is the basis of geographic literacy. This study analyzed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location cognition on the map of ‘Korea’ and its ‘neighboring countries’ in terms of locating and orienting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While the overall positioning-accuracy rate for Korea’s location increased as the grades increased, a leap forward was observed in the 3rd and 6th grades. However, there was also a problem that the overall average rat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was less than 50%. As for the positioning characteristics for Korea, there were systematic trends such as worldwide dispersion distribution in the lower grades, concentration in East Asia from the middle grades, and clustering i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upper grades. Elementary school students’ overall awareness of neighboring countries was high in the order of Japan, China, Russia,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Mongolia, and others. Japan and China are the top-recognition countries, and the lower and middle school students have higher awareness of Japan, and the upper grades have higher awareness of China. In the orienting for neighboring countries, spatial characteristics such as expansion of distribution range, clustering of distribution, and strengthening of clustering along the northwest-southeast axis were confirmed as the higher grades progressed.

Key words: location cognition, positioning-accuracy rate, locating, awareness, orienting

* 공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Dept. of Social Studies,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ylee@gnu.ac.kr

** 대전목동초등학교 교사(Teacher, Daejeon Mokdong Elementary School), miyeon98@naver.com

I. 서론

세계의 여러 현상을 공간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려는 지리(학)에서는 그것의 위치 특성부터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위치는 현상의 존재 이유(raison d'être)를 함의할 뿐만 아니라, 관계(relationship)와 영향(influence)을 내포하기 때문이다(이간용, 2015, 72). 이런 까닭에 위치(location)는 지리학습의 5대 주제 중 맨 먼저 언급될 정도로 지리교육의 핵심적 주제이자(Boehm and Petersen, 1994), 지리학습의 기초 개념이며(심승희, 2010), 지리적 문해력의 바탕을 형성한다(김다원, 2018; Turner and Leydon, 2012).

한편, 지리교육의 거시적 목적으로서 세계성(worldity) 고양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이간용, 2022), 세계에 대한 이해는 지리학습의 변함없는 내용적 요체이다. 그리고 세계이해의 기초는 국가 이름과 그 위치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초등학생의 세계에 대한 인지 특성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늘 관심과 호기심의 대상이었다. 그들의 세계인지는 정치 사회적 상황, 교육과정의 변화, 그리고 미디어 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아 늘 변화하는 속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초등학생의 세계관을 이해하고, 초등 사회과 지리영역 교육과정의 설계 및 그 교수·학습 활동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의 세계인지 특성을 고찰한 여러 연구가 있었다(송언근 외, 2002; 이경한, 2006; 임미연 외, 2021). 그런데 세계 각국에 대한 인지 특성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였으나, 정작 ‘우리나라’ 및 ‘이웃 나라’에 대한 초등학생의 인지 특성을 밝힌 연구는 희소하다. 또한 초등학생의 세계인지 특성은 주기적인 갱신이 필요한 주제임에도 2000년대 초 이후에 별다른 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1세기 전반 시점에서 초등학생의 세계인지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려는 연구의 일환(一環)으로서, 우리나라와 이웃 나라에 대한 초등학생의 위치인지의 공간적 특성을 밝혀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첫째, 초등학생의 ‘우리나라’ 위치인지 특성을 정위율(正位率)과 정치(定置, locating) 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정위율이란 우리나라가 삭제된 세계지도 상에서 우리나라의 정확한 위치를 표시하는 비율로서 설문

응답자와 정위자(正位者), 곧 정확한 위치를 아는 학생 간 비율로 정의한다. 둘째, 초등학생의 ‘이웃 나라’ 위치인지 특성을 인지도(認知度)와 정향(定向, orienting) 면에서 밝혀보고자 한다. 여기서 인지도란 어떤 국가 이름에 대한 인지 정도로서 설문 응답자와 특정 국가 이름의 거명자(擧名者), 곧 거명한 학생 간 비율로 정의한다.

이처럼 정치와 정향의 측면에서 초등학생의 세계인지 특성을 고찰하려는 것은 기존의 연구가 국가 이름 등 주로 문자 정보 위주의 연구에 경도됨으로써 공간적인 측면에서 초등학생의 세계인지를 구명하는 데 다소 미흡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분석 결과가 초등 지리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찾는 일과 함께, 초등학생의 세계인지 특성 그 자체가 의미 있다고 보고 그것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서 설문 및 자료 분석법, 그리고 간단한 기술 통계 분석이 동원될 것이다. 연구 대상은 충남 및 대전 지역의 여러 초등학교 2~6학년 학생들이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3장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II. 연구 동향

초등지리 연구에서 ‘위치’를 주제로 삼은 선행 연구들은 초등학생의 위치인지 특성 분석과 위치학습 고양 방안으로 대분된다. 이 중 본 연구와 궤를 함께하는 위치인지 특성 분석에 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일찍이 송언근 외(2002)는 대구의 초등 6학년생을 대상으로 세계에 대한 인지 특성과 맥락을 고찰한 바 있다. 이 연구는 대륙별 국가, 세계 각국에 대한 호오(好惡), 우리나라와의 관계, 그리고 대구시와 세계의 관계 등에 대한 인지 특성 등 다차원적인 스케일에서 초등학생의 세계에 대한 인지 특성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이를 토대로 하여 초등 세계 지리 교육과정 구성에 대한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경한(2006)도 전주의 초등 1~6학년생을 대상으로 세계이해도 발달을 분석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세계이해도가 발달했는데, 특히 4학년을 전후로 급격한 성장을 보였고, 유럽대륙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았다. 이러한 특성에 미친 가장 큰 인자로서 학습 경험과 생활 경험을 꼽았다.

이후 초등학생의 세계인지 특성에 관한 연구는 한동안 관심에서 멀어지다가 최근 임미연 외(2021)에 의하여 의미 있는 연구 성과가 제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세계인지의 1차 양적 팽창은 3학년에서, 2차는 6학년에서 나타났는데, 이는 이정환(2006)의 연구에 비추어 양적 팽창의 시기가 3학년으로 1개 학년 하향했다는 점, 인지도가 가장 높은 대륙이 아시아로 변화되었다는 점, 초등학생의 세계인지 오류는 학년 변수보다는 개인 변수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점 등 중요한 분석 결과를 내놓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환경확대법의 재검토를 비롯하여 세계지리 학습을 위한 지역 선정 등 초등지리영역의 내용 선정 및 조직 방식에 함의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한편, 초등지리에서 위치학습 방안에 관한 연구는 최근까지 꾸준히 축적되어왔다. 초등지역 학습에서 위치 지식의 활용 필요성을 논의한 연구(김다원, 2008, 2018)를 비롯하여, 초등지리에 적합한 위치학습의 내용과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한 연구(심승희, 2010, 2011), 퍼즐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초등학생의 세계지리 기본 위치 지식 증진을 위한 실행 연구(이민호 외, 2013), 세계 각국의 지리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위치학습의 내용과 방법을 분석한 연구(김다원, 2017), 그리고 과정중심의 평가를 위한 위치 학습 적용 방안 연구(한동균 외, 2017) 등 다양하다. 특히 김다원(2008, 2017, 2018)과 심승희(2010, 2011)의 연구는 위치학습에 대한 여러 실제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초등 지리교육에의 기여도가 높다고 사료된다.

이상에서처럼 최근의 초등 지리교육 분야에서는 위치 인지 주제보다는 위치학습 방안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렇지만 더욱 효과적인 위치학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초등학생의 위치인지 특성에 대한 이해

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양 주제 간 균형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빈번한 해외여행, 다양한 해외 시사 및 오락 프로그램의 시청, 그리고 일상에 깊이 파고든 첨단 디지털 공간 도구 및 콘텐츠의 활용 등은 초등학생의 세계인지에도 영향을 줄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이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와 분석은 초등학생의 세계관 이해는 물론이고, 초등지리영역 교육과정의 구성 및 교수·학습 활동에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I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21세기 전반이란 시점에서 초등학생의 세계인지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 것이다. 그 일환으로서 먼저 초등학생의 세계인지가 종단적으로 어떤 발달 특성을 보이는지를 거시적으로 고찰한 바 있었고(임미연 외, 2021), 이어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우리나라’ 및 ‘이웃 나라’의 위치인지에 대한 공간적 특성을 밝혀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으로서 기술적 통계분석, 연구 도구로서 설문지 방식을 활용하였다. 연구를 위한 표본 대상 초등학생의 구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에서와 같이 설문은 대전 및 충남 아산 지역의 초등 2~6학년생 344명을 대상으로 2020년 7월부터 11월에 실시하였다. 표본의 선정은 우리나라의 중앙적 위치 특성과 더불어 연구자의 인접 지역이라는 편의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초등 1학년생이 설문에서 제외된 이유는 COVID-19 사태에 따라 당시 1학기 대면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한글 독해 및 설문 이해의 어려움이 크다는 일선 교사들의 전문적 의견을 반영한 것이었

표 1. 설문 표본 집단의 지역별 및 학년별 구성

지역 학년	대전 A			대전 B			대전 C			충남 아산 D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2	16	9	25							24	17	41	40	26	66
3				39	29	68							39	29	68
4	8	10	18				23	23	46				31	33	64
5							11	12	23	25	23	48	36	35	71
6							42	33	75				42	33	75
계	24	19	43	39	29	68	76	68	144	49	40	89	188	156	344

다. 설문 응답의 학년별 비율은 18~21%로 유사했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9%) 많았다.

세계에 대한 공간적 위치인지는 지도나 백지에 국가나 지역의 위치를 표시하거나 그리도록 하는 형태를 통해 측정이 가능하다(김다원, 2008). 그런데 지도상 위치표시 방식은 선지식에 기초한 인지 특성은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으나, 심상적 특성을 포착하기는 어려운 단점이 있다. 반면 지도 그리기 방식은 자유로운 공간적 표현의 장점이 있어(Harwood and Rawlings, 2001) 위치인지 특성을 분석하기에 유용하지만(Metz, 1990; Wise, 1975), 그 비규칙성 때문에(Butenfield, 1986, 238-246) 연구자마다 다른 결과로 해석되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세계 속 우리나라 위치인지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에서는 세계 백지도에 우리나라의 위치를 찾아 작은 원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이웃 나라의 위치인지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설문에서는 지도 그리기 방식을 동원하였다. 전자의 경우 우리나라, 곧 자국의 위치인지에 대한 객관적 정확성 여부나 정도가 지리교육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보기 때문이며, 후자의 경우 이웃 나라에 대한 국가 이름과 위

치인지 등 심상적 주관성을 확인하는 것이 지리교육적으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설문은 그림 1과 같다. 설문을 위한 문항은 총 10개였으나, 본 연구와 관련된 문항은 2개로서, 우리나라의 위치인지 관련 문항에서는 태평양 및 대서양 중심의 세계 백지도를 제시하여, 각각 학년별 및 남녀별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웃 나라 위치인지 관련 문항은 한반도만 그려진 A₄ 용지에 이웃 나라를 그리도록 하여 학년별 및 남녀별 특성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설문 응답을 위한 소요 시간은 약 20분 정도였고, 응답이 진행되는 동안에 인지의 왜곡을 막기 위해 학생들에게는 어떤 질문도 허용되지 않았다.

설문에 대한 응답은 학년별 및 남녀별로 분석하여 그 특성과 변화상을 살펴보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정위율, 인지도 등 간단한 기술적 통계분석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웃 나라의 위치인지 관련 설문인 ‘6-1) 이웃 세 나라의 이름 쓰기’의 경우, 다수의 학생이 세 나라 이상을 쓴 데다 ‘6-2) 이웃 나라 위치표시’ 문항에 ‘6-1) 문항의 응답에는 제시하지 않은 나라들을 표시하고 있었다. 이에 ‘6-1)’의 설문 응답의 유효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6-2)’의

5. 그림 (가), (나)는 우리나라를 지운 세계지도입니다, 우리나라가 위치하는 곳에 ○표 하세요.




6. 우리 이웃 나라에 대한 질문입니다.

- 1) 우리 이웃에 있는 세 나라의 이름을 쓰세요.
- 2)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이웃 나라들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그려보세요.



* A₄ 용지의 중앙부에 위 지도를 제시함.

그림 1. 우리나라 및 이웃 나라의 위치인지 특성 파악을 위한 설문 문항

응답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6·2’ 문항의 응답에 대한 분석에서는 학생들이 그린 지도 위에 한반도를 중심으로 8방위 방사 좌표(*)를 통하여 이웃 나라들에 대한 정향(定向) 및 상대적 거리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렇지만 어떤 국가의 영토 표현은 면적(面的)인 특성이 있어 해당 국가의 위치를 특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예를 들면, 중국을 한반도의 북쪽에서부터 서쪽을 지나 남쪽까지 이어 그린 경우라든가, 일본을 한반도의 동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이어 그린 경우가 그것이다. 그런 경우는 해당 국가의 이름을 써 놓은 곳을 점적(点的) 위치로 특정하였다. 이름은 정체성의 핵심이고, 그 이름을 써 놓은 곳을 해당국의 중심적 위치로 인지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별 위치인지의 공간적 특성 변화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IV. 초등학교의 우리나라 및 이웃 나라 위치인지의 공간적 특성

1. 우리나라 위치인지의 공간적 특성

1) 우리나라 위치에 대한 정위를 특성

초등학교가 세계지도 상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인지

하는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는 연구 대상 학생 중 응답자만을 분석한 결과이며, 여기서 정위자(正位者)란 제시된 세계지도에 우리나라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한 학생을 말한다. 표 2를 바탕으로 하여 초등학교의 학년별 및 지도별 우리나라에 대한 위치인지 특성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태평양 중심 지도의 경우, 학년별 전체 평균 정위율(正位率)은 2학년 9.3%, 3학년 31.0%, 4학년 42.6%, 5학년 59.0%, 6학년 81.7%로 나타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정위율도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3학년과 6학년에 우리나라에 대한 위치인지의 정확도가 크게 도약하는 점이 주목된다. 이러한 특성은 초등학교의 세계인지 발달의 중단적 특성을 분석한 연구 결과와도(임미연 외, 2021) 일치하여 흥미롭다.

이는 학년 승급(혹은 연령)에 따른 전체적인 인지발달의 향상과 함께 3학년부턴 본격적인 사회과 학습이 시작되면서 직간접적으로 지도(地圖)에 노출되는 빈도가 잦아지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위치에 대한 호기심과 확인 경험에 기인한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6학년의 경우는 인지발달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는 시기라는 점, 5학년의 국토지리 학습경험의 바탕 위에 인터넷, TV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잠재적 교육과정이나 시각·공간적 매체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공간적 위치인지가 누적된

표 2. 초등학교의 학년별 및 지도별 우리나라 위치인지 특성

(단위: 명, %)

학년	구분	태평양 중심 지도						대서양 중심 지도					
		남		여		계		남		여		계	
		응답자	정위자	응답자	정위자	응답자	정위자	응답자	정위자	응답자	정위자	응답자	정위자
2	수	28	1	26	4	54	5	31	1	21	2	52	3
	정위율	3.6		15.4		9.3		3.2		9.5		5.8	
3	수	37	12	21	6	58	18	35	6	16	4	51	10
	정위율	32.4		28.6		31.0		17.1		25.0		19.6	
4	수	30	14	24	9	54	23	23	12	25	7	48	19
	정위율	46.7		37.5		42.6		52.2		28.0		39.0	
5	수	31	18	30	18	61	36	30	17	30	15	60	32
	정위율	58.1		60.0		59.0		56.7		50.0		53.3	
6	수	42	36	29	22	71	58	41	31	26	20	67	51
	정위율	85.7		75.9		81.7		75.6		76.9		76.1	
합 계		168	81	130	59	298	140	160	67	118	48	278	115
평균 정위율		48.2		45.4		47.0		41.9		40.7		41.4	

결과라고 해석된다. 남녀별 정위율의 경우, 전체적으로 여학생(45.4%)과 남학생(48.4%) 간 큰 차이는 없으나, 각 학년에서 대체로 여학생의 정위율이 2학년을 제외하고는 남학생보다 낮은 경향을 보이기는 한다.

이어 대서양 중심 지도에서도 학년별 전체 평균 정위율은 2학년 5.8%, 3학년 19.6%, 4학년 39.0%, 5학년 53.3%, 6학년 76.1%로 나타나 태평양 중심의 지도와 동일하게 학년이 높아질수록 정위율도 높아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분명한 점은 모든 학년에서 태평양 중심 지도에서보다 정위율이 낮다는 점이다. 또한, 태평양 중심 지도에서보다 응답자 수도 적다. 특히 저학년에서는 응답자가 줄어들거나 남녀학생 간 편차도 불규칙한 점이 발견된다. 이는 대서양 중심 지도보다는 태평양 중심 지도에 익숙한 것과 관계있다고 해석된다. 설문에 제시된 지도가 소축척이라는 점도 작용하였음은 물론이다. 예를 들면, 3학년생의 경우 태평양 중심 지도에서 발해만을 우리나라의 위치로 인지한 학생들까지 포함할 경우 남학생의 정위율은 51.4%, 여학생은 42.9%로 증가한다. 그리고 대서양 중심 지도에서 사할린 남부를 우리나라의 위치로 인지한 학생들까지 포함하면 남학생의 정위율은 48.6%, 여학생은 50%까지 증가한다. 그러나 응답률이 낮은 점까지도 감안한다면 초등 저학년 학생들은 우리나라의 정확한 위치를 인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분명하다 하겠다.

2) 우리나라 위치에 대한 정치(定置)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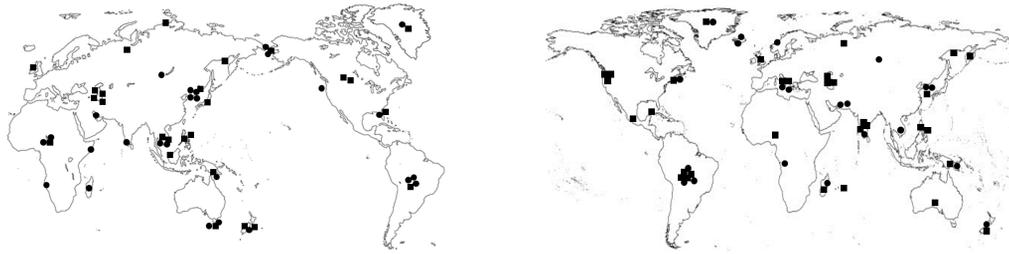
다음으로 초등학생의 학년에 따른 세계지도 상 우리나라 위치인지의 공간적 특성을 그림 2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위치인지의 전체적인 특성을 볼 때, 학년이 올라갈수록 세계 범위의 분산 분포로부터 점차 우리나라의 제 위치로 집중화하는 현상이 뚜렷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의 발달적 요인과 함께 지리학습의 누적, 다양한 유형의 지식과 정보매체의 효과 등 교육적 효과가 작용한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서도 위치학습에 주는 몇 가지 시사점으로서 최종 학년에 이르기까지도 여전히 적지 않은 초등학생이 우리나라의 정확한 위치인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우리나라의 위치를 실제보다 남쪽 방면에 위치하는 것으로 인지하는 학생도 많다는 점이다. 그리고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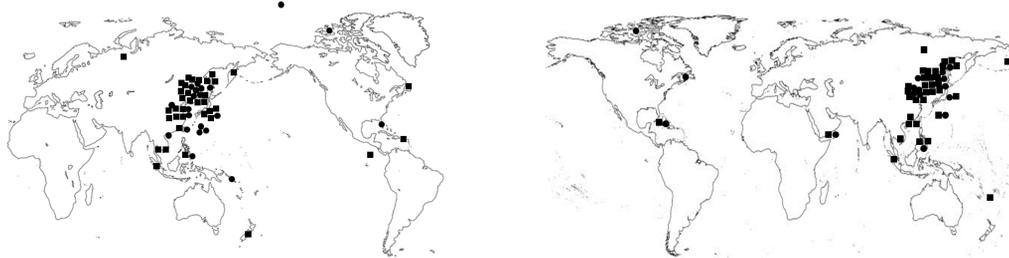
엇보다도 이 같은 오인지(誤認知) 학생들의 경우, 우리나라의 위치를 동남아시아에 정치(定置)하는 비율이 적지 않다는 특성도 확인된다. 이는 아마도 그림이나 지도의 중앙부에 무엇인가를 표시하고 싶어 하는, 일반적인 심리적 작용에 따른 중앙부 경도(傾倒) 효과를 비롯하여, 우리나라가 대륙 동안부에 위치한다는 정도는 알고 있을 위치감의 재인(再認) 효과, 그리고 소축척지도 상에서 우리나라의 영토 모양과 닮아 보이는 여러 길쭉한 도서 및 반도의 다수 분포에 따른 형상 혼동 효과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한 지리학습적 처치로서 다양한 축척과 도법의 지도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정확히 짚어내고 인지하는 학습 활동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위치는 지역학습은 물론이고(김다원, 2018), 여러 지리적 현상 및 그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며, 지리적 및 공간적 상상력의 근원적 바탕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최소한도 우리나라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지하도록 돕는 일은 지리교육의 목적에 비추어 온당하고 바람직한 요청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 2를 통하여 학년별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면, 초등 2학년에서는 세계지도 상에 우리나라의 위치를 특정함에 있어 전 세계적인 분산 분포를 보이는 특징이 나타난다. 이는 우리나라에 대한 위치학습을 거의 경험하지 못했다는 점을 뜻한다. 그런 가운데서도 태평양 중심 지도에서는 카스피해(4명), 베트남(4명), 필리핀(2명), 태즈메이니아(3명), 뉴질랜드(3명), 플로리다(2명)에 표시한 빈도가 상대적으로 많은데, 이는 설문을 일종의 숨은그림찾기 놀이 형식으로 이해하면서 한반도와 유사한 형상에 표시한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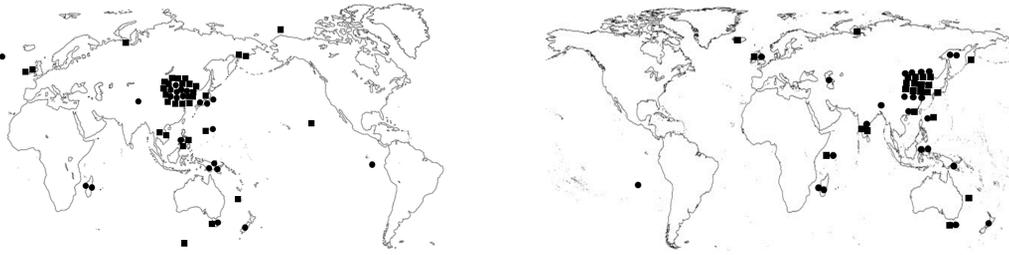
또 하나의 특징으로서 대륙 중앙부(11명)에 우리나라의 위치를 표시하는 사례도 발견되는데,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그림이나 지도의 중앙부 빈 여백에 사물을 정치하려는 심리적 경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남아메리카를 우리나라의 위치로 여럿 인지한 사례는 아마도 축척 개념이 거의 없는 초등 저학년 학생들이 소축척지도 상에서 한반도와 유사한 남아메리카의 형상에 이끌린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대서양 중심 지도에서 우리나라가 남아메리카에 위치하는 것으로 인지한 학생(8명)이 더 늘고, 인도에 위치한다는 학생(4명)도 늘어나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리고 2학년 학생들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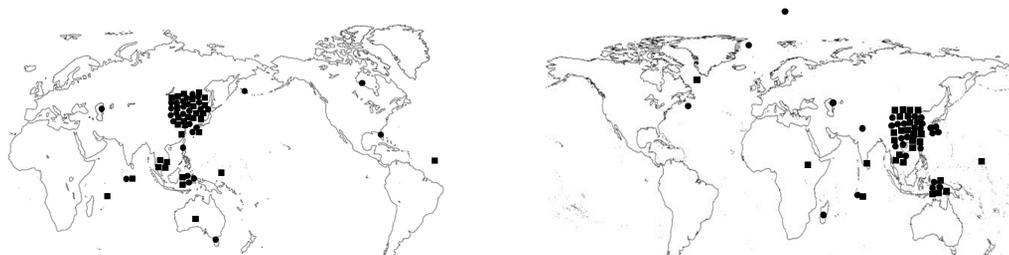
<초등 2학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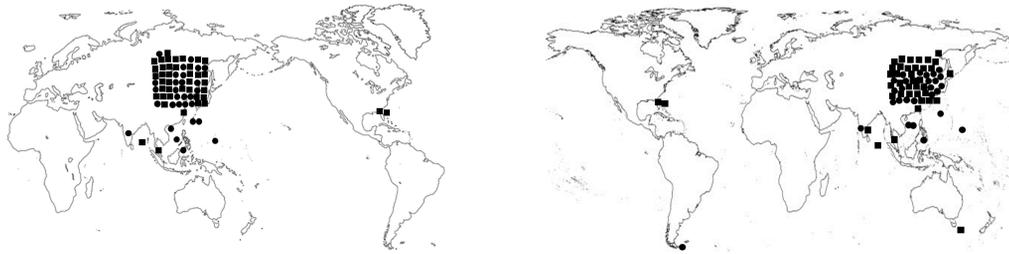
<초등 3학년생>



<초등 4학년생>



<초등 5학년생>



<초등 6학년생>

* ■는 남학생, ●는 여학생을 나타내며, 군집 형태의 경우는 한반도가 제 위치임.

그림 2. 초등학생의 학년별 태평양 및 대서양 중심 지도 상 우리나라의 정치(定置) 특성

www.kci.go.kr

서 태평양 중심 지도의 경우에서처럼 우리나라가 대륙 동안에 위치한다는 인지 비율(22명, 40.7%)이 높은 점도 확인된다.

3학년의 우리나라 위치인지 특성의 경우, 앞서 언급한 2학년의 세계적인 분산 분포로부터 동아시아로의 집중화 경향이 뚜렷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학생들의 발달적 요인과 함께, 교육과정의 영향이 크다고 본다. 특히, 본 설문이 3학년 과정의 ‘우리 고장과 다른 고장의 의식 주 생활 모습의 비교’ 학습(교육부, 2015a, 19)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2학년 슬기로운 생활과의 ‘다른 나라 주제의 학습에(교육부, 2015b, 24)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주제의 학습과 관련하여 교과서와 활동 부록에는 태평양 중심의 세계지도가 10여개 제시되어 있다(교육부, 2017).

4학년의 경우, 3학년과 마찬가지로 동아시아로의 집중화 현상은 동일하나 3학년에 비하여 다소 분산적 분포 특성을 보인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교과서에 제시되는 세계지도의 빈도가 줄어든 것이 하나의 영향일 수 있다고 본다. 사회과 지리학습이 이루어지는 3학년의 2학기의 ‘고장’ 관련 단원(교육부, 2018a, 4~49)과 4학년 1학기의 ‘지역’ 관련 단원(교육부, 2018b, 10~53)에는 어떤 종류의 세계지도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환경확대법의 경직된 적용에 따른 문제점의 하나이다. 따라서 위치학습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2학년 과정의 학습 효과를 지속화 및 심화하기 위해서는 비록 3학년 및 4학년의 지리학습이 고장(군 단위)이나, 지역(시도 단위)을 공간 단위로 하더라도 고장이나 자기 지역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세계지도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부분은 항상 전체 속에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5학년의 경우, 4학년에 비해 다시 동아시아로 재집중하는 현상, 곧 우리나라의 위치인지가 정확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위치를 동남아시아 등 실제와 다른 곳에 정치하는 비중도 적지 않다는(41.0%) 점은 우리나라 위치학습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대목일 것이다. 더구나 5학년 과정에서 체계적인 국토지리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는 3, 4학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마찬가지로 국토지리 학습이 세계와 연관시키지 않고 ‘공간 단락적’ 이루어지는 문제점과 관계 깊다고 판단된다.

6학년의 경우, 5학년에 비해 한반도를 중심으로 밀집화하는 현상이 뚜렷하고, 우리나라를 정확히 정치하는 비중은 크게 높아진다. 그렇지만 초등 최고 학년에서조차 여전히 약 20%의 학생들이 우리나라가 인도나 동남아시아 방면에 위치하는 것으로 인지한다는 점은 초등 지리 교육에 함의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세계지도 상 초등학생의 우리나라 위치에 대한 정위율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전체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3학년 및 6학년에 도약적 상승이 나타나는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초등학생의 전체적인 평균 정위율은 50%를 하회하는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세계지도 상 우리나라의 위치에 대한 정치(定置) 경향을 보면, 저학년에서 세계적인 분산 분포, 중학년에서 동아시아로의 집중화, 고학년에 한반도로의 밀집화 등의 계열적 특성을 보이며, 이는 초등사회와 교육과정의 영향과 환경확대법의 경직적 적용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고 해석된다. 또한 고학년에 이르기까지도 우리나라를 동남아시아 방면에 위치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학생의 비중도 적지 않다는 점은 우리의 초등 지리교육에 성찰이 필요한 대목이라 아니할 수 없다.

2. ‘이웃 나라’ 위치인지의 공간적 특성

1) ‘이웃 나라’에 대한 국가 이름 인지도

‘이웃 나라’에 대한 초등학생의 공간적 인지 특성을 우리의 이웃 나라로서 어떤 국가를 거명하는지, 곧 국가 이름 인지도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표 3은 한반도가 중앙에 배치된 백지에 우리의 이웃 나라로 표시한 국가들에 대한 학년별 빈도 분포를 정리한 것이다.

설문 응답에 대한 분석 결과, 초등학생들은 실로 다양한 국가들을 ‘이웃 나라’로 인지하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표 2에서처럼 남녀학생 모두에게서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미국, 몽골 등의 순으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2를 통하여 구체적인 특징을 정리해보면, 학년별 편차는 있으나 남녀학생을 불문하고 초등학생 전체로는 이웃 나라에 대한 인지도는 순위 면에서 일본(32.8%)과 중국(32.6%)이 거의 동일하다는 점이 무척 흥미롭다. 이는 일본과 중국의 이해를 위한 지리학습의 내용 및 활동의 질과 양, 자료 선정 등의 측면에서 함의하는 바가 있다. 그중의 하나는 양국 모두 우리의 중요한 이웃 국가

표 3. 초등학생의 학년별 ‘이웃 나라’ 국가 이름 인지도

(단위: 명, %)

국가 이름	학년	2		3		4		5		6		합계	순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일 본	수	18	16	20	17	20	20	22	28	32	31	224	1
	인지도	33.0		33.3		33.3		32.9		31.8		32.8	
중 국	수	14	12	17	17	19	20	24	30	38	32	223	2
	인지도	25.2		30.6		32.5		35.5		35.4		32.6	
러시아	수	1	-	8	7	7	3	13	21	26	21	107	3
	인지도	1.0		13.5		8.3		22.4		23.7		15.6	
북 한	수	11	8	7	3	5	9	1	-	4	2	50	4
	인지도	18.5		9.0		11.7		0.6		3.0		7.3	
미 국	수	10	8	2	4	2	4	-	1	4	1	36	5
	인지도	17.5		5.4		5.0		0.7		2.5		5.3	
몽 골	수	-	1	3	1	3	1	5	4	3	1	22	6
	인지도	1.0		3.6		3.3		5.9		2.0		3.2	
기 타	수	2	2	3	2	4	3	1	2	1	2	22	7
	인지도	3.8		4.6		5.9		2.0		1.6		3.2	
계		56	47	60	51	60	60	66	86	108	90	684	-

라는 점에서 산술적 평행이 바람직하다는 전제하에 두 국가에 대한 지리학습적 조화와 균형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특징은 초등 저학년 학생들은 북한을 ‘이웃 나라’로 인지한다는 점이다. 이는 일상과 미디어에서 북한이 국가적 실체로서 소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북한지역 이해, 통일교육 등의 학습 주제가 그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어린 학생들에게는 우리와 다른 이질성이나 구분 의식을 심어주는 방식으로 작동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지리 학습이 이루어지는 5학년에서는 북한을 이웃 나라로 인지하는 학생이 전무하다는 점은 특이할 만하다. 이는 교육과 학습이 어린 학생들의 세계인지에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의 하나라 하겠다. 기타 공간적으로 한반도와 연결하지 않은 미국이나 몽골을 이웃 나라로 인지하는 학생도 소수 존재하는데, 이는 ‘이웃’의 의미를 지리적 근접성보다는 관계성으로 인지한 것에 기인한다고 본다.

학년별 특성을 보면, 저학년과 중학년에서는 중국보다는 일본에 대한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높다가 고학년(5-6학년)에서는 일본보다 중국에 대한 인지도가 더 높게 나

타나는 변화상도 확인된다. 또한 저학년과 중학년에서는 낮았던 러시아에 대한 인지도는 고학년에서 증가하는 반면, 북한의 경우는 그 반대이다. 이는 저학년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 고학년에서 행해지는 국토 및 세계지리 학습 등 사회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아울러 몽골, 베트남, 인도, 기타 등등의 국가가 이웃 나라로 제시된 것은 저학년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 교육, 여행이나 특정 국가에 대한 선호 등 개인적인 경험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이웃 나라로서 인지하는 국가가 학년이 높아질수록 중국, 일본, 러시아로 점점 집중하는 경향도 나타나는데, 이는 교육과정이나 개인적 경험에 따라 ‘이웃’의 개념이 공간적 근접성으로 인지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2) ‘이웃 나라’에 대한 위치 정향 특성

초등학생의 학년별 ‘이웃 나라’ 위치인지의 공간적 특성에 대하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당 국가를 어느 방향(方向) 혹은 방면(方面)에 위치시키는가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3은 초등학생이 인지하는 학년별 이웃 나라 위치를 한 장에 모아 표시한 것이다.

그림 3에 나타난 전체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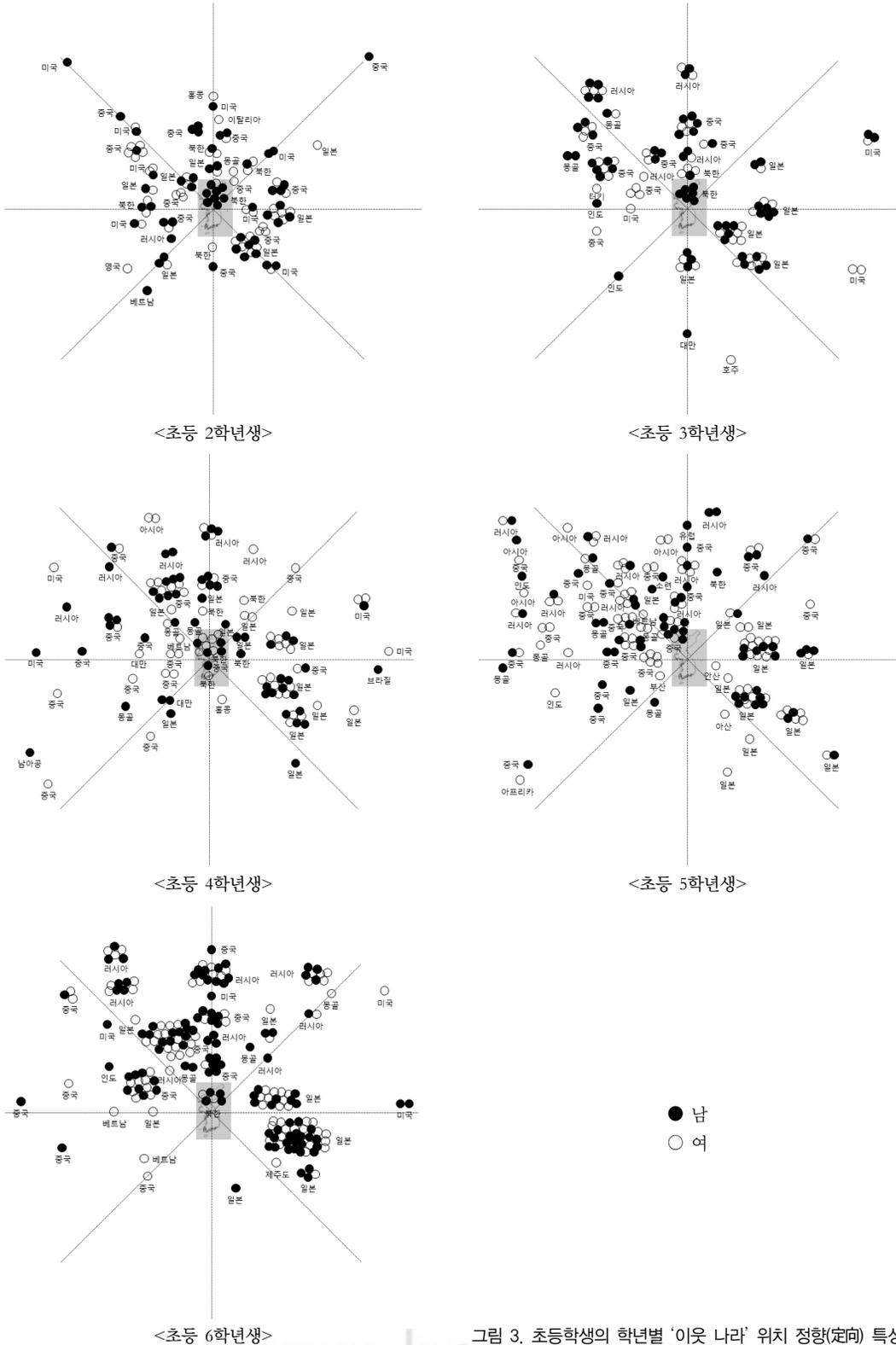


그림 3. 초등학생의 학년별 '이웃 나라' 위치 정향(定向) 특성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갈수록 이웃 나라의 분포 범위 혹은 상대적 거리가 확대되는 현상을 보인다. 곧, 저학년 일수록 이웃 나라를 한반도와 가깝게 정치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학년이 낮을수록 전체적인 레이아웃, 곧 좌표 준거체계보다는 관계성을 표상하는 발달 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현상은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위에서 내려다 본 교실 모습을 그리는’ 공간조망 특성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이간용, 2007). 둘째, 이웃 나라의 정향에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군집화 현상, 다시 말해 해당 국가의 실제 위치에 가깝게 정치하는 학생이 많아진다는 점이다. 이는 초등사회과 지리영역 교육과정의 경험을 통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셋째, 학년이 높아질수록 이러한 군집화 현상은 북서·남동 방향의 축을 따라 뚜렷해진다는 점이다. 이는 이웃 나라에 대한 공간인지의 특성 면에서 중요한 함의가 있는데, 그것은 긴형상의 영토 배열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한반도의 북서방면에, 일본을 남동 방면에 위치하는 국가로 ‘인자’한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한반도의 북서·남 방면에 걸쳐 있는 영토 형상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북서방면에 존재하는 국가로 인지한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수도 베이징이 한반도의 북서쪽에 위치한다는 사실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곧 이 일대를 중국의 핵심부로 여기는 심상적 표상일 것 같다. 아울러 이러한 북서·남동 축으로의 군집화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이웃 나라의 배열에 있어 방위 혹은 좌표 준거체계가 작동한다는 점도 말해준다(서태열, 2005, 125-127).

그림 3을 통하여 학년별 특징을 정리하면, 초등 2학년생들은 이웃 나라로서 모두 10개국에 대하여 103개의 위치를 표시하였는데, 그 빈도는 일본·중국·북한·미국·러시아·몽골·베트남·홍콩·이탈리아·영국 순이었다. 그림 3의 상단 좌측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2학년생들이 인지하는 우리의 ‘이웃 나라’는 한반도를 360° 둘러싼 전 방면에 정향되어 있다. 곧, 이 국가들 상호 간의 상대적인 혹은 지리적인 거리나 방향성, 말하자면 정향적 일관성을 찾기는 어렵다.

3학년생들도 모두 10개국에 대하여 111개의 위치를 표시하였는데, 그 빈도는 일본·중국·러시아·북한·미국·몽골·인도·대만·터키·호주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에 대한 방향과 상대적 거리의 정확성이 높아졌으며, 미국, 러시

아, 중국, 몽골 등의 위치인지에서도 대륙과 대양의 분포가 반영되었다. 4학년생들은 이웃 나라로서 11개국에 대하여 120개의 위치표시가 이루어졌고, 빈도는 일본·중국·북한·러시아·미국·몽골·대만·베트남·홍콩·남아공·브라질 순이었다. 정향적 특성으로는 남서·남동 방면에 이웃 나라의 위치표시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대륙과 해양의 배열 관계에 대한 공간인지가 확립되는 시기로 판단된다.

5학년생들의 이웃 나라 위치표시는 152개로서 4학년에 비해 약 30개 정도 많아져 그 증가폭이 2~5학년 사이에서 가장 컸다. 이웃 나라로 표시된 국가의 수는 모두 8개국이었었는데, 그 빈도는 중국·일본·러시아·몽골·인도·북한·미국·베트남 순으로서 2~4학년생들과는 달리 중국이 일본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웃 나라라고 여기는 국가 수가 10개국에서 8개국으로 줄었으며, 중국·일본·러시아의 3국으로 더욱 압축되었다. 정향 면에서는 북서 및 남동 방면으로의 밀집도가 더욱 높아지는데, 이는 미시적으로는 중국과 일본에 대한 위치인지, 거시적으로는 세계지도에 대한 접촉 빈도가 높아지면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유라시아 대륙의 전체적인 분포와 형상에 대한 공간인지의 확립과 관련이 깊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5학년생에게서는 이웃 나라로서 대륙(아시아 5회, 아프리카 1회, 유럽 1회)과 국내 도시(부산 1회, 안산 1회, 아산 1회)가 거명된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끈다(그림 3의 중 우단). 이러한 공간적 오인지는 4학년에서도 몇몇 사례가 발견되는데, 이는 4~5학년 교육과정에 여러 지명이나 국가가 등장하지만 텍스트 혹은 단락적인 정보만 제시될 뿐, 공간적 맥락을 통한 위치정보가 부재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의 일부로 보인다. 실제로 환경확대법의 기계적 적용에 따라 4~5학년 사회교과서에는 세계지도가 거의 제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교과서 이외에 지도 등 공간자료를 쉽게 접하지 못하는 환경이거나 지리에 대한 관심도가 적은 학생들의 위치인지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몇몇 학생에게서 공간인지 발달 면에서 공간 단위 간 포섭 및 위계 관계가(서태열, 2005, 128-133) 아직 정립되지 않은 데 기인할 수도 있다.

6학년생들의 이웃 나라 위치표시 수는 198개였으며, 모두 8개국이 표시되었다. 그 빈도는 중국·일본·러시아·북한·미국·몽골·베트남·인도 순이었다. 5학년생들에 비해

중국-일본-러시아로 더욱 집중되었다. 정향 면에서 대륙과 대양의 분포, 방향과 거리 등의 정확도가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대륙이나 도시 등 공간적 위계 및 포섭 관계에 대한 오인지가 전무하였다. 이는 초등 6학년에 이르면, ‘이웃 나라’가 하나의 지리적 개념으로서 안정적으로 확립된다는 점을 말해준다.

‘위치’는 물리적 개체에 대한 사실로의 자리(site), 거리(distance), 방향(direction), 인접성(adjacency), 주변 지역 및 주변환경(enclosure) 등의 공간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Gersmehl, 2005, 59). 김다원(2008)은 위치 서술은 지도상에 표시된 위치정보에 대한 절대적 및 상대적 위치를 지각하고 조직화하여 표현해내는 능력이라 정의하였다. 이에 초등 2~6학년생들 다수가 ‘이웃 나라’로 인지하는 일본, 중국, 러시아의 위치에 대하여 정향의 측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일본에 대한 위치인지의 경우(그림 4), 모든 학년에서 한반도의 동-남동 방면에 정향하는 비중이 높은 가

운데, 학년이 높아질수록 남동 방면에 집중화하는 특성이 확인된다. 곧, 우리의 초등학생들은 대부분 일본을 한반도의 남동 방면에 위치하는 나라로 인지한다는 점이다. 학년별로 그 특징을 요약하면, 2학년생들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거의 모든 방면에 일본을 정향하는 분산적 특성을 보이는 반면, 3학년 학생들은 남쪽 방면으로 인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동-남동 방면으로 정향하여 다른 학년에 비하여 분산 정도가 낮은 것이 주목된다. 앞서 세계지도 상 우리나라의 정치에서도 3학년의 분산 정도가 가장 낮았는데, 이는 아마도 연구 대상 표본 집단의 지역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4학년 이후 학년이 올라가면서 동-남동 방면으로의 밀집은 더욱 뚜렷해지는 가운데, 한반도와의 상대적인 거리는 3학년 학생들이 가깝게, 4~6학년 학생들은 다소 먼 차이가 있었다.

중국에 대한 위치인지의 경우(그림 5), 2학년을 제외한 나머지 학년에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북동-남서 축을 기준으로 서쪽 방면에 중국을 정향하는 비중이 높은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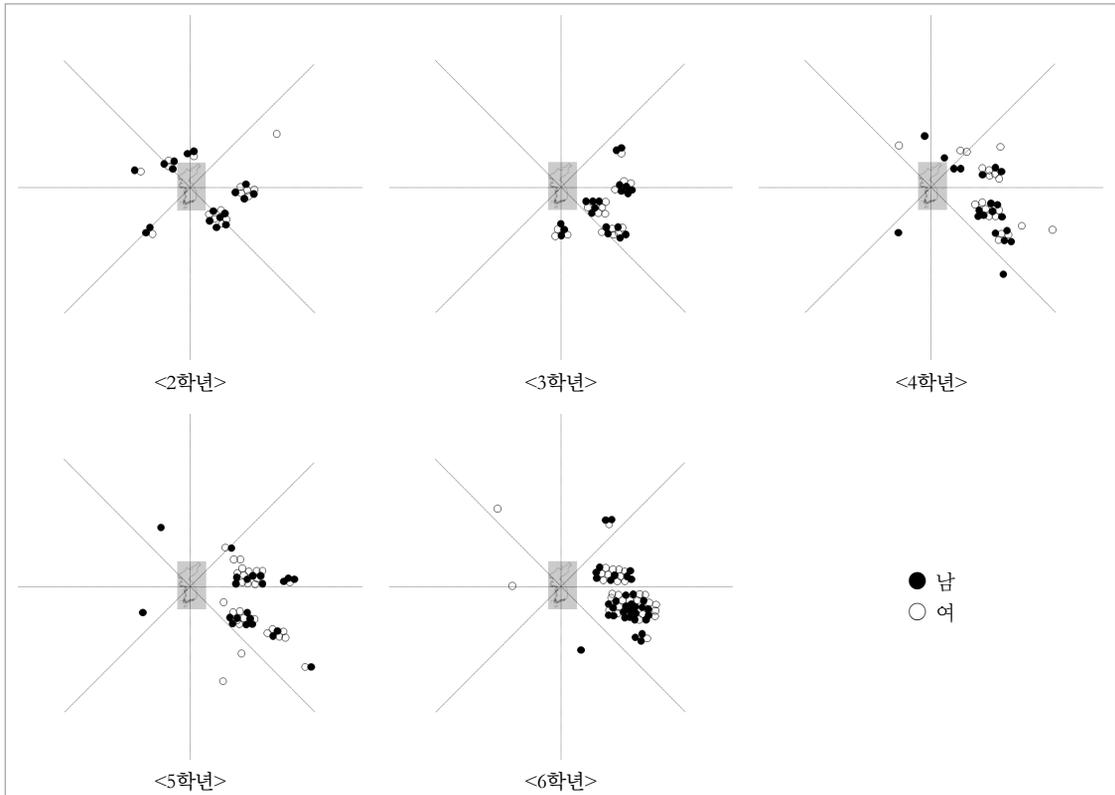


그림 4. 초등학생의 일본에 대한 학년별 위치 정향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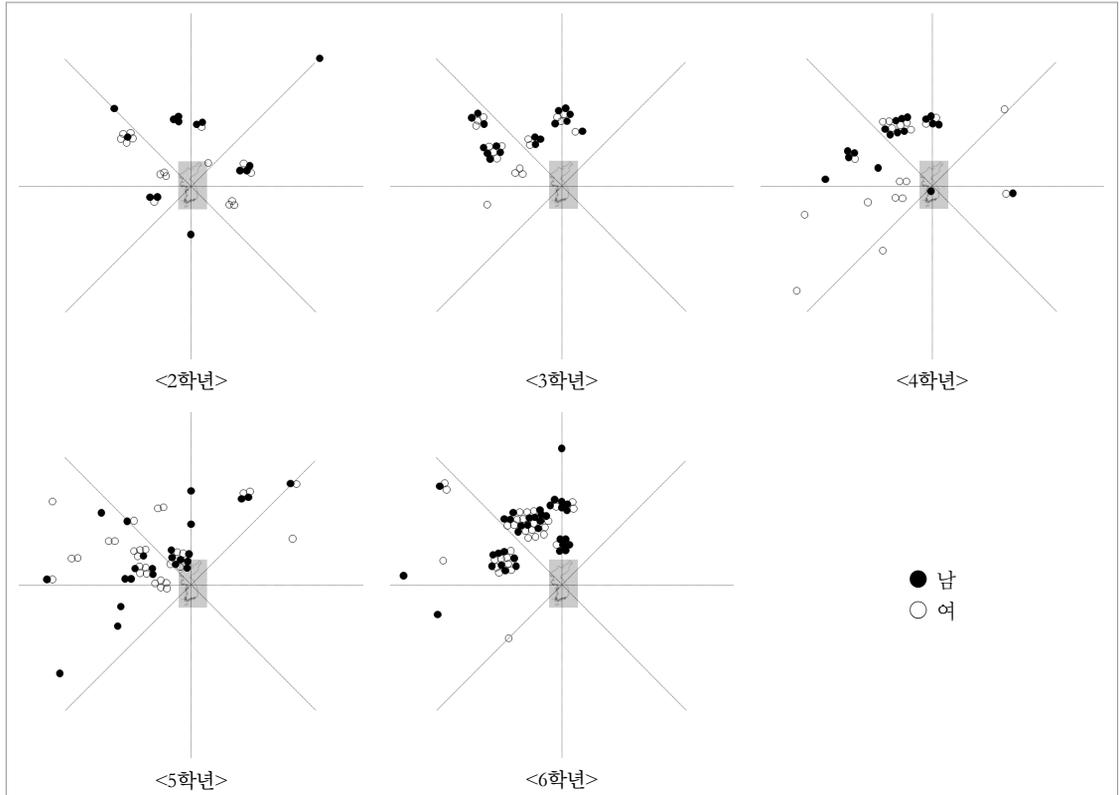


그림 5. 초등학생의 중국에 대한 학년별 위치 정향 특성

데, 학년이 높아질수록 점차 북서 방향으로 집중하는 특성이 확인된다. 곧, 우리의 초등학생들은 중국을 한반도의 북서 방향에 위치하는 나라로 인지하는 정향 특성을 보인다. 학년별로 그 특징을 요약하면, 2학년 학생들은 일본의 위치인지에서와 마찬가지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거의 모든 방향에 중국을 정향하는 분산적 특성을 보인다. 반면에 3학년 학생들은 북-북서 방향에 정향하여 다른 학년에 비하여 분산 정도가 낮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표본 집단의 특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어 4학년부터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북-북서 방향으로의 밀집이 더욱 뚜렷해지는 가운데, 한반도와의 상대적인 거리는 5학년 학생들에게서 가깝게 나타나는 경향도 관찰된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경우(그림 6), 2학년을 제외한 모든 학년에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서 축을 기준으로 북쪽 방향에 정향하는 비중이 높은 가운데, 학년이 높아질수록 점차 북쪽 방향으로 집중하는 특징이 관찰된다. 곧,

우리의 초등학생들은 러시아를 한반도의 북쪽 방향에 위치하는 나라로 인지하는 정향 특성을 확인할 수 있지만, 북서와 북동 방향으로 정향하는 학생도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동서 폭이 큰 러시아의 영토 특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학년별로 그 특징을 요약하면, 2~4학년 학생들은 러시아에 대한 위치인지가 거의 부재하거나 다소 빈약한 특성을 보인다. 그런 가운데서도 3학년 학생들은 북-북서 방향에 집중 정향하여 다른 학년에 비하여 분산 정도가 낮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표본 집단의 특이성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러시아에 대한 위치인지는 5학년이 되어서야 비교적 활성화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으며, 6학년에서야 비로소 그 정향성이 확립되는 점에서 이웃 3개국 중에서 가장 늦은 위치인지 특성을 보였다.

이상에서처럼 초등학생의 우리나라와 이웃 나라에 대한 정치 및 정향 특성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일정한 방향성을 지니면서도 학년마다 그 특성은 다르다는 점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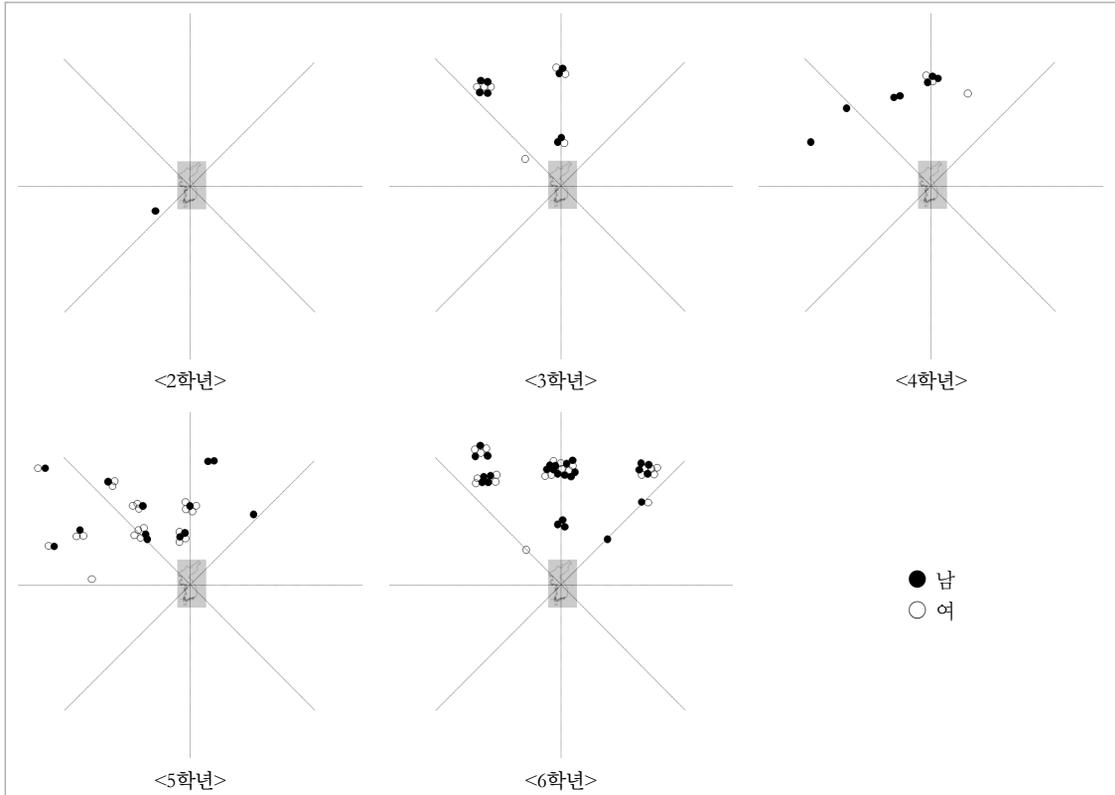


그림 6. 초등학생의 러시아에 대한 학년별 위치 정향 특성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학생들의 발달적 특성, 교육과정의 경험, 그리고 다양한 공간 정보에의 노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본다.

V. 요약 및 결론

‘위치(location)’는 지리교육의 핵심 개념이자 아이디어이고, 지리적 문해력의 기초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지리교육 정체성의 근원을 이룬다. 그리고 국가의 이름이나 위치 지식은, 마치 수학의 구구단처럼, 한번 습득되면 비교적 영속성이 강한 특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여타의 사실 지식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위치 지식은 세계의 여러 현상이나 사건을 진공적(眞空的) 관념에서가 아니라 지표면이라는 구체적인 맥락에서 그것들을 관계적이고 실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지리교육적 가치는 크다.

본 연구는 이처럼 위치 개념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

을 토대로 하여 초등학생이 우리나라, 이웃 나라,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위치인지의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초등학생들의 세계관 이해와 함께, 초등사회과 지리영역의 교육과정, 초등지리의 교수·학습 과정, 지리학습 자료의 개발 등에 주는 함의와 시사점을 찾아보려는 연구의 일환이다. 또한 초등학생의 세계에 대한 인지 특성 및 그 변화에 대한 주기적인 연구는 그 자체로서 학문적 호기심의 대상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초등학생이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디에 위치하고, 우리 이웃 나라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어느 방면에 자리하는지, 곧 위치인지의 공간적 특성을 정치(定置)와 정향(定向)의 측면에서 분석한 것이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위치에 대한 초등학생의 정위율(正位率)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전체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3학년과 6학년에서 도약적 상승이 나타나는 특성이 확인되었다. 그렇지만 초등학생 전체의 평균 정위율은 50%를

하회하는 문제점도 발견되었다. 우리나라의 위치에 대한 정치(定置) 특성으로는 저학년에서 세계적인 분산 분포, 중학년에서 동아시아로의 집중화, 고학년에서 한반도로의 집중화 등의 계열적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는 발달적 특성과 함께 초등사회과 지리영역 교육과정의 영향과 환경확대법의 기계적 적용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학년에 이르기까지도 우리나라를 동남아시아 방면에 위치하는 것으로 오인지는 학생의 비중도 적지 않다는 점은 우리의 초등 지리교육에 성찰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하겠다.

둘째, 이웃 나라에 대한 초등학생의 전체적인 인지도(認知度)는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미국, 몽골, 기타 등의 순으로 높았는데, 고학년으로 갈수록 중국, 일본, 러시아의 3국으로 집약되는 경향을 보였다. 최상위 인지도 국가인 일본(224명, 32.8%)과 중국(223명, 32.6%)으로서 흥미롭게도 두 국가의 인지도는 거의 동일하였는데, 저학년과 중학년에서는 일본, 고학년에서는 중국에 대한 인지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웃 나라에 대한 정향(定向)에서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분포 범위의 확대, 분포의 균집화, 그리고 북서-남동 방향 축을 따른 균집화 강화 등의 특성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우리의 초등학생은 중국을 한반도의 북서 방면에, 일본은 남동 방면에, 러시아는 북쪽 방면에 존재한다고 여기는 공간인지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우리 초등학생의 공간적 세계관의 일부를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이를 토대로 보다 바람직한 초등사회과 지리영역의 교수·학습 설계를 위한 기초를 제공할 것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교육부, 2015a, 사회과교육과정, 교육부 교시 제 2015-74호 [별책 7] .
 교육부, 2015b,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 교육부 교시 제2015-74호 [별책 15] .
 교육부, 2017, 초등학교 1~2학년군 겨울 2-2, 교학사.
 교육부, 2018a, 초등학교 사회 3-2, 지학사.
 교육부, 2018b, 초등학교 사회 4-1, 지학사.
 김다원, 2005, “위치인지와 지역 인지 간의 관련성 연구”, 지리교육논총, 49, 13-22.

김다원, 2008, “지역 이해를 위한 위치 지식과 위치학습 연구”,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6(2), 145-162.
 김다원, 2017, “각국 지리교육에서 위치학습의 내용과 방법 분석 연구-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의 초·중학교 지리교육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5(1), 49-64.
 김다원, 2018, “초등 지역학습에서 위치 지식의 활용 필요성 논의”,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6(4), 33-44.
 서태열, 2005, 지리교육학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송언근·김재일, 2002, “초등학생들의 세계에 대한 인지 특성과 세계지리 교육과정 구성의 전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8(3), 364-379.
 심승희, 2010, “초등 지리교육에 적합한 위치학습의 내용과 방법 모색”,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8(3), 221-236.
 심승희, 2011, “지도 퍼즐을 활용한 초등 위치학습에 관한 연구”,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9(2), 1-17.
 이간용, 2007,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조망 능력 발달 특성 분석”, 공주교대논총, 44(2), 21-38.
 이간용, 2015, 재미와 의미를 담아내는 지리학습의 설계, 교육과학사.
 이간용, 2022, 지리교육의 정체성 강화를 위한 성찰적 일고(一考), 30(2),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51-64.
 이경한, 2006, “초등학생들의 세계이해도 발달”,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4(4), 289-298.
 이민호·이경한, 2013, “초등학생의 세계지리 기본 위치 지식의 증진을 위한 실험 연구-퍼즐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1(1), 17-29.
 임미연·이간용, 2021, “초등학생의 세계인지의 중단적 발달 특성 및 그 지리교육적 함의”,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9(1), 15-35.
 한동균·문종국, 2017, “초등사회과에서 위치학습의 적용 방안 모색-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12), 1165-1187.
 Boehm, R. G. and Petersen, J. F., 1994, An Elaboration of the Fundamental Themes in Geography, *Social Education*, 58(4), 211-218.
 Butenfield, B., 1986, Comparing distortion on sketch maps and MDS configurations, *Professional Geographer*, 38, 238-246.
 Gersmehl, P., 2005, *Teaching Geography*, NY: The Guilford Press.
 Harwood, D. and Rawlings, K., 2001, Assessing young children's freehand sketch maps of the world, *International Research in Geographical and Environmental Education*, 10(1), 20-45.

- Metz, H. M., 1990, Sketch Maps: Helping students get the big picture, *Journal of geography*, 89(3), 114-118.
- Turner, S. and Leydon, J., 2012, Improving Geographic Literacy among First-Year Undergraduate Students: Testing the Effectiveness of Online Quizzes, *Journal of Geography*, 111, 54-66.
- Wise, J. H., 1975, Student deficiency in basic world knowledge, *Journal of Geography*, 74(8), 477-488.

접 수 일 : 2022. 11. 15

수 정 일 : 2022. 12. 16

게재확정일 : 2022. 12. 16

교신: 이간용, 32553, 충남 공주시 웅진로 27(봉황동),
공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kylee@gjue.ac.kr, 041-850-1633)

Correspondence: Khan Yong Lee, kylee@gjue.ac.kr